월/요/광/장

김우창

근본은 마음의 진정성이다

주로 조선일보에서 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작은 결혼식이 좋다는 캠페인이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 의식과 같은 것이 지나치게 거창해지고 호화스러워졌다는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잔치나 집회가 크게 벌어지면 무조건 기분이 좋고, 프라이드를 살리는 일이 될는지 모른다. 또 그것은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축의금을 불리고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행사가 커지고 부담금이 늘어나다 보니 축의금을 많이 거두어야 하고, 이것은 다시 행사를 더 크게 벌리는 사유가 된다. 시속(時俗)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작은 행사는 쓸쓸한 마음이 들게 할 수 있다. 하여튼 날로 커지는 예식의 규모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지만, 사치와 과시의 사회 기풍을 조장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검소한 삶의 기풍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의례 규모의 크기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로 인하여 거짓 마음이 더욱 더 습관화 된다는 점이다.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결혼식에 축의금을 지참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결혼을 축하할 마음이 있는 것일까?

외국의 결혼식과 관련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청첩장을 보내려고 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의 고민은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초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

청첩장을 보내는 것은 관계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인데,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혼식에는 서로 가까이 느끼는 사람들만을 초대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만을 초대하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결혼식이나 다른 의례 행사에 초대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충분히 축하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축하할 마음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의 답변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아, 참가를 거절하거나 사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고받는 마음이 있다고 하여 넘쳐나는 공감을 기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감에 선행하여 존경과 존중이다. 의식(儀式)이란 양식화된 행위의 수행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안무법(按舞法)이다. 의식 가운데 마음이 생겨난다. 물론 그것을 따를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장례 행렬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하고 상주의 아픈 마음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것은 그러한 마음가짐의 최소의 표현이다. 종교적 집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보다 심각한 의미에서 마음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진정한 마음이 자신의 삶을 사는 데에 있어서 일반적인 계율이 되어 있다면, 마음이 없이 대열을 불리고 축의금을 내어 놓는 결혼식은 절로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타락한 사회에서는 마음의 진정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혼식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그러하다. 뇌물을 인사라고 또는 선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기만의 관습에서 저절로 나온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억지로 동원되어 노변에 도열하여 있는 것을 보고 그 강제성을 알면서도 그 환호에 감격하였다는 지도자가 있었다.

미국의 작가 윌리엄 사로얀의 작품에 전선에서 보내온 청년 병사의 편지가 들어 있는 것이 있다. 편지에 강조되어 있는 것은 추상적인 애국심이 아니라 자기 고장과 고장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도 억지스러운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애국심도 구체적인 삶의 사실에 대한 진정한 느낌에서 자라나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정치는 매우 추상적인 이념에 입각할 수밖에 없는 집단 행위를 다루는 인간사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사실에 관계되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가 진정한 정치이다.

정치 언어가 번창할 수밖에 없는 계절인데, 진정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말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검소한 결혼식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이다. 마음의 진정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질서를 부여하고 사회윤리와 정치의 기본이 된다.

〈이화여대 석좌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여수산단 재난관리체계 일원화 시급하다

경북 구미 화학공장의 불산 누출에 따른 대형 재난을 계기로 여수국가산단 등 전국 석유화학단지의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일원화 등 정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산 누출사건은 사고 발생 직후 초기대응 부실에 따라 2차 피해로까지 크게 확대된 만큼 석유화학단지 재난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국가산단은 GS칼텍스, LG화학, 여천NCC, 호남석화 등 석유화학업체 60여 개를 포함해 총 220여개 기업이 자리한 국내 최대 규모다. 이들 업체에서는 황산·암모니아·염산 등 유해화학물질과 휘발유·경유·벤젠 등 위험물질, 염소·포스겐 등 독성가스 등 모든 종류의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맹독성 불산을 취급하는 대규모 공장도 있으며, 근래에 2차례나 사고가 났다고 한다. 여수산단에선 최근 3년간 총 26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해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

문제는 이처럼 위험성이 높은 석유화학단지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80여개가 넘는 개별법을 근거로 3원화돼 있다는 점이다. 유해화학물은 환경부에서, 독성가스는 자치단체가, 위험물은 소방서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어 재난 후 효과적이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통한 정보 공유, 초동대응 및 지원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석유화학업종 성격상 공장 1곳에서 유해화학물질·독성가스·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허다해 사고 전 안전관리나 사고가 날 경우 관련 당국이 따로 노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 같이 재난재해에 대해 연방재난관리청이 전권을 행사하는 통합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일본처럼 석유콤비나트 재해방지법을 제정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가동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재난도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체가 치유 나서야 할 '묻지마 범죄'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의 자포자기형 분노 범죄라는 점이다.

지난 2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길거리에서 차량 6대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인근 3곳의 상점 물건을 때려부수며 난동을 부린 30대의 범행도 이러한 범죄의 전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자는 2개월 전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가출해 추석을 혼자 보내게 되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고, 가족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2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빌라에서 40대 남자가 경제난을 이유로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등 추석연휴에만 광주에서 4명이 자살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내연녀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성적 문제로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은 여고생이 집에 불을 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개인의 정신적·성격적 장애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병리현상으로 보는 게 옳다. 소외감과 좌절,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극단적인 보복심리로 표출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압박, 치열한 경쟁 등 사회 전반적인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는 것도 그런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낙오된 젊은이들이 사회적 외톨이로 변해가고, 이들이 잠재적 시한폭탄이 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사회 전체가 나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 강화 등 형사정책 차원에서 조처가 필요하다. 또 성장지상주의, 경제지상주의 아래서 외면해온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조칼럼

'자기 자녀 구하기'만 신경 쓰는 부모

김정호

'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이 별개라는 것'과 '자기 자식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필자 역시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절감하고 있다. 학업적인 측면에서 "내 자식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는 기대 속에 부모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측면에서 보면 부모의 대부분은 "내 자식만은 가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가 법정에 나가보면 엄연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이라면 평소에는 모범적이더라도 어느 순간 가해자가 또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과거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회였다. 높은 교육열과 성실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군부독재정권의 고속성장을 추구하는 개발성장 위주 정책에 편승, 일정한 성과를 이뤄낸 측면은 있다. 그러나 앞만 보고 질주해온 우리 사회의 그늘엔 승자독식구조의 폐해, 사회양극화 심화, 사회안전망 결여, 학벌위주의 서열주의와 인성교육의 실종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사실 지금의 학교폭력 등 사회병리현상은 그동안의 고속성장 속에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의 반작용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물질적 풍요보다는 사회 성숙과 건강성 회복에 더 중점을 두는 교육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사라지고 입시위주의 지나친 경쟁구조에 우리의 아이들이 내몰리고 교육 본래의 제 기능이 실종된 지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와 꼴찌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없는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꼬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1등도 꼴찌도 모두 행복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수없이 양산되기 마련이다.

대부분 부모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내 자녀가 피해자였을 때는 어떻게든 가해자에 대해 응징하려는 마음이 강하다.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을 기재해 그 아이를 사회에서 격리시켜 낙오자로 처벌받게 하려는 것도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일 게다. 반대로 내 자녀가 가해자가 됐을 때는 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녀 구하기에만 집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실제 지난해 명문사립대 의대생들에 의한 동기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부 가해자 부모의 행동이 그 전형이라 하겠다. 경위야 어떻게 됐든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내 자녀가 잘못했던 행동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헤아려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과 사회윤리에 부합하는 가해자로서의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일부 부모는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나 피해 감수성에 대한 느낌은 둔감하면서도, 애지중지 금지옥엽 키운 내 아들이 앞으로 의사도 못하게 되고 사회에서 낙오될 것만을 걱정하면서 내 자녀 구하기에만 급급해 그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뒤틀린 모정의 전형인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지만, 필자의 짧은 경험과 생각으로는 사건발생 초기에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합의에 이르렀다면 초범이고 학생인 점이 감안돼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선처가 내려질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로부터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되는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내 자녀 구하기에만 급급한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와 더불어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피해회복노력이 미흡하였던 점이 반영됐다고 필자는 추측하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집안의 엘리트였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부족했고, 부모 역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서열주의, 성과주의, 공부, 성공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건전한 구성원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아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기술적인 능력 즉 학업 성과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과의 정서적인 관계는 결국 부모의 사랑과 배려, 일관된 교육철학, 실천이 동반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도 내 자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듯하다. 자기자녀를 구하는 진정한 방법은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낙인찍지 않는 태도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필자를 포함한 부모들 모두가 스스로 곱씹어 볼 일이다.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기고

광주음식 전통미 살려 한식의 세계화로

이성희

흔히 광주 하면 '김치의 종가', '남도음식 맛의 고장'이라고 한다. 광주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세계화를 향해 김치 도시를 조성했을 뿐 아니라, 1994년부터 20여 년 동안 해마다 김치축제를 열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외형적인 노력만으로 지금의 광주를 한식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웃 전주만 해도 비빔밥 하나로 콜롬비아의 포파얀, 중국의 청두, 스웨덴의 오스터순드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되었다.

전주에만 비빔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어릴 적 배고플 때 보리밥에 밭에서 막 따온 고추와 산에서 캔 나물, 김치, 멸치, 계란 등을 참기름에 비벼 먹은 바로 그 비빔밥이 세계적인 음식이 된 것이다.

맛의 고장 광주의 음식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켜온 맛의 비결을 이어나갈 훌륭한 인재 양성과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음식은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써야 고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이는 지속적인 매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상품명이 인간의 외면이라면 토속성있는 식재료는 인간의 깊은 내면이라고 할 수 있다. 외모만 화려해서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광주뿐 아니라 인근 담양, 화순, 나주, 해남 등에서도 좋은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남도음식의 소중한 기본자산이다.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 제철 재료의 사용은 사랑을 주는 음식에 있어서 신뢰의 기본이다.

10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세계김치연구소가 현 광주김치센터 부지로 온다고 한다. 남도음식의 감초격인 광주김치의 발전을 위한 브레인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원한다. 광주음식의 가장 기본적인 김치산업의 육성·확대를 위해서는 주재료인 김치·무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등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어등산을 둘레길 조성이나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가족단위 나들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시범 운영마을을 선정해서 김치재료 생산부터 상시체험행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도 그 대안 중 하나일 것이다.

흔히 남도음식 하면 다양한 종류와 양에 놀란다. 어떤 면에서는 후한 인심으로 포장되기도 하는 데 정말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불필요한 낭비는 고물가의 시대에 경쟁력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몇 년 전 남도김치가 일본시장에 진출한 적이 있다. 일본인은 소량포장을 선호함에도 사전준비가 부족해 대량 포장판매를 하는 바람에 일본인의 구매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잔반을 줄이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 규격봉투, 위생복 및 위생모, 모범위생업소 표지판 등 각종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배려 감사한 마음,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요리학원에서 음식을 배우는 학생 중에 일부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기가 만든 음식을 수업이 끝나면 버리고 간다.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이웃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음식을 만드는 자세, 대하는 자세도 자기 자신의 인격이며 수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음식이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음식 장인과 전문가 발굴을 위한 가칭 광주음식 명인발굴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명인과 기능 보유자를 발굴·육성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국조리고등학교(경기도 시흥시 소재), 부산 조리과학 고등학교, 곡성 조리과학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남도음식의 종가라고 하는 광주에 음식 전문고등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체계적이고 전통적인 남도음식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이 절실한 이유다.

〈(사)한국맛음식연구원장〉

無等鼓

구적(鳩笛)

빚은 흙을 구워 만든 오카리나(ocarina)는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존재했던, 가장 오래된 취주(吹奏)악기 중 하나로 추정된다. 한두개 음을 내는 휘슬(whistle)이나 사냥도구에서 유래한 훈과 같은 종류의 흙피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수천년 전부터 전해진다. 목가적이면서도 맑고 소박한 음색에 비둘기를 닮아 구적(鳩笛)이라고도 불리는 외형은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다.

로마에서는 벽돌을 굽는 기술자들이 수백년동안 장난감으로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이를 현대적인 형태로 개량 발전시킨 이는 주세페 도나티(Giuseppe Donati)다. 어려서부터 악기 연주에 두각을 나타내던 그는 오카리나를 접한 뒤 그 매력에 흠뻑 빠져 개량·발전시키는 데 몰두했다. 달걀 모양이었던 전통 오카리나의 구멍수를 늘리고, 17세 때인 1853년에는 현재의 거위 모양을 만들어냈다.

도나티가 만든 오카리나는 단지 몇개의 소리밖에 낼 수 없었던 당시의 것과 달리 정확한 음정의 음계를 가져 이탈리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는 1863년 오카리나 그룹인 '콘체르트 델 오카리나'를 조직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오카리나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86년 일본 NHK의 다큐멘터리 '대황하' 덕분이다. 오카리나로 연주된 배경음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이다.

문화교육특구를 지향하는 광주 남구가 '1구민 1악기'사업을 바탕으로 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1만5000여명의 '오카리나 대합주' 앙상블을 선보여 주목을 끌었다. 주민들은 '아리랑'과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한 음색으로 연주하며 장관을 연출했다.

역설적이지만 수년전 광주시교육청이 보급했다가 학교현장에서 외면받은 오카리나가 사업 추진에 든든한 기반이 됐다고 한다. 일부의 우려대로 이 사업이 전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공동체 의식 함양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을 들여야겠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정경부	2200-612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1	디자인	2200-536
체육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조사부	2200-571	〈FAX	02-773-9335〉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